

스포츠

8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올림픽 데이런’ 티켓 예매 시작 한강변 마라톤·VR체험 등 행사

스포츠 73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2019 올림픽데이런’을 10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최한다.

‘2019 올림픽데이런’은 전 연령이 참가 가능하며 사전예매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위메프(www.wemakeprice.com)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티켓 판매 사이트의 상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올림픽데이런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프로그램이 예정이다. 서울과 한강변을 달리는 마라톤(5km/10km) 대회 외에도 올림픽 스포츠 종목 체험,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버스, 선수·양준혁·이정용 등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와 올림픽 스타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 노라조·10센치와 함께 하는 애프터 파티 등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비는 15000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스티커, 스포츠 짐백 등 기념품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명의의 참가확인서가 포함된 올림픽데이런 키트가 증정된다. 이번 키트에는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오픈 선글라스가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기념 메달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올림픽데이런은 1988 서울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넘어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울시와 공동 주관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죽기 살기로 뚝’ 농구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은 빈손?

25년만에 첫 승 했지만...상금은 0원?

FIBA, 대회 수입따라 배당금 지급
2014년 스페인 대회때 아예 없어
대한농구협회, 추가수당 안 주기로
값진 1승 선수들, ‘하루 6만원’ 뿐

중국 8개 도시(베이징, 난징, 우한, 상하이, 광저우, 동관, 포산, 심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은 전 세계 농구 최강국을 가리는 대회다.

FIBA는 대회 규모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대회 명칭을 기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월드컵으로 바꾸고, 각 지역에선 국제농구연맹(FIFA) 월드컵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농구는 축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편화된 종목이지만, 월드컵 위상은 차이가 크다. 가장 큰 차이는 상금에 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축구 월드컵은 우승 상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FIBA가 2018 러시아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에 지급한 상금은 무려 3800만 달러(약 452억 원)다. 월드컵 본선에 출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800만 달러(95억 원)가 선수단에 주어지며 월드컵 준비비 150만 달러(18억 원)가 추가로 각국 협회에 전달된다. 상금규모는 FIBA가 대회 전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농구 월드컵은 다르다. 상금 규모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 FIBA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대회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정



2019 FIBA 월드컵 일정을 마친 한국농구대표팀 선수들이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대한농구협회 방별 회장(오른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농구대표팀은 월드컵에서 25년만에 1승을 수확했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보를 찾을 수 없다.

공식 자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참가국에게 일정 수준의 비용이 전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는 10일 “사실상 월드컵 준비 과정(홍경기 개최, 선수단 운영 등)에서 발생한 금액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한농구협회는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6차례의 홍경기를 치렀다. 본선 16강 토너먼트부터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역시 금액은 비공개지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수당은 대부분 각국 농구협회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전직 미국프로농구

(NBA) 선수였던 라자 벨(은퇴)은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농구협회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과거에 비해 적다. 때문에 스테판 커리(골든스테이트), 제임스 하든(휴스턴),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 등은 월드컵 출전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이번 농구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 순위결정전 2경기를 치렀다. 코트디부아르와의 순위결정전에서 80-71로 승리, 최종 26위로 대회를 마쳤다.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서도 25년 만에 월드컵에서 1승을 수확했

지만, 별도의 수당은 없다.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는 “월드컵이 끝난 뒤 대회 수입에 따라 FIBA에서 각국에 배당을 지급하는데 그 때마다 다르다. 1998년 그리스 대회 때는 배당이 내려와서 선수들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4년 스페인 대회 때는 아예 없었다. 대회가 끝난 뒤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농구협회 방별 회장은 9일 선수단 해산 자리에서 협회 차원의 추가 수당은 없음을 밝혔다.

월드컵에서 온힘을 짜낸 한국농구대표팀 선수들의 수당은 기본급(하루 6만 원) 이전부터다. 정지우 기자 stop@donga.com

동갑내기 박인비-신지애 일본서 뜻깊은 재회

JLPGA 여자프로골프선수권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를 대표하는 1988년생 동갑내기 박인비(31·KB금융그룹)와 신지애(31·스리브드)가 일본 무대에서 맞붙는다.

둘은 12일 일본 효고현 세리힐스 골프클럽(파72·6425야드)에서 개막하는 JLPGA 투어 메이저대회 일본여자프로골프선수권(총상금 2억 엔·약 22억 원)에서 우승을 놓고 다툰다. 박인비가 6년만의 JLPGA 투어 복귀전을



박인비

치르는 가운데 신지애가 다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면서 뜻 깊은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대회는 ‘골프 여제’ 박인비의 일본 나들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JLPGA 투어 통산 4승을 거둔 박인비는 2013년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 이후 JLPGA 투어 정규대회에 출전하지 않

았다. 대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만 집중하며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4대 메이저대회 및 올림픽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휴식기를 맞아 실전 감각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일본을 찾은 박인비를 맞이할 이는 동갑내기 친구 신지애다. 2013년 미국 생활을 접고 이듬해 JLPGA 투어로 뛰어든 신지애는 매년 우승을 거두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해에는 JLPGA 투어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메이저 3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작성했고, 올해 역시 상금 부문 1위를 달리면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이처럼 해외 무대에서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을 높인 박인비와 신지애는 모처럼 일본에서 실력을 겨룬다.

박인비는 지난달 LPGA 투어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거둔 시부노 히나코(21), 우에다 모모코(33·이상 일본)와 1~2라운드를 치른다. 지난해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히가 마미코(26), 하라 에리카(20·이상 일본)와 초반 맞대결을 벌인다. 한편 박인비, 신지애와 함께 1988년생 ‘용피 클럽’을 이루는 이보미와 김하늘 역시 우승에 도전한다.

고병준 기자 shutout@donga.com



A매치 대상 축구매치 12회차 건강한 소액 참여문화 빛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5일(목)에 펼쳐진 한국-조지아전을 대상으로 한 축구매치 12회차에서 약 6000원의 1인당 참여금액을 기록해 성숙한 소액 참여문화가 빛났다고 전했다.

1만6857명의 축구팬이 참여한 이번 회차는 월드컵 2차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황의조, 권창훈 등이 총 출동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매치게임의 1인당 평균 참여금액은 6020원으로 어느 때 보다 건전하게 나타났으며, 배당률은 67.9배를 기록했다.

단, 전반과 후반의 결과를 모두 맞힌 적중자의 경우 상대팀이 피파랭킹 94위의 조지아였기 때문에 37위의 대한민국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의외로 2-2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며 254명이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매번 건전한 구매로 베틀 선진국을 선도하고 있는 스포츠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케이토토 역시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휴식기 더 조심하세요”

케이토토, 9일부터 15일까지 중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매출총량 준수에 따른 일시 발매휴식에 돌입한 상황을 틈타 불법스포츠포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매휴식은 추석 연휴가 포함되는 9일(월) 0시부터 15일(일) 24시까지 7일간이다. 16일(월) 오후 2시부터 발매가 재개된다. 단, 발매휴식 기간 동안 환급을 비롯해 환불과 고객센터 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스포츠포도박은 소셜 미디어와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강한 스포츠팬들을 유혹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발매 사이트인 ‘베틀맨’만이 유

일한 합법이다.

만일 불법스포츠포도박과 관련한 사이트나 홍보 또는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포도 신고센터(1899-1119)’로 발 빠르게 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포도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토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 발매중단 기간을 틈타 불법스포츠포도박이 건전한 스포츠팬들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스포츠포도박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토토 서프라이즈’ 이벤트 참여하세요

페이스북 통해 와일드카드 주인공 예측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을 통해 11일(수) 자정까지 2019 KBO 와일드카드 후보 중 응원하는 팀을 추천하는 ‘토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토토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지난 2015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정규시즌 4위와 5위가 펼친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명승부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번 시즌 와일드카드의 주인공을 예측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LG와 KIA의 2016년 맞대결에서는 5위 팀 KIA가 먼저 1승을 챙긴 가운데 2차전에서 0-0이던 9회말 1사 만루에서 LG 김용의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LG가 승리, 두 팀의 운명이 엇갈렸다.

NC와 SK의 2017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4위 NC가 큰 고비 없이 5위 SK를 물리쳤다. 2018시즌에는 넥센과 KIA가 만났다. KIA는 에이스 양현종을 투입했지만, 5회말 무더기 실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스포츠



만들고 당신의 응원합니다. 스포츠토토는 이번 시즌을 맞아 건강한 국민체육진흥공정으로 상용 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토토가 당신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KBO 2019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